

#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소비지출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민우<sup>1</sup>

신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유지은<sup>2</sup>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학과, 강의전담교수

##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특히, 코로나-19의 소비지출과 노동시장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가계 소비가 팬데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특히 소매, 신용 카드 지출 및 식품에서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어서 전체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기업이 들어오는 수익이 없고 고정 비용만 충당한다는 가정 하에 산업 전반의 평균 생존 시간은 대부분 국가에서 8주에서 19주 이내였고, 소매, 음식점과, 숙박업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과 소기업이 대부분이었다. EU 27개 나라와 영국에 부과된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가 EU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정 비율의 노동자들이 원격근무를 할 수 있고, 원격 작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 즉, 원격근무, 온라인 구매,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등의 증가 그리고 탄소배출의 감소에 대한 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기업의 생존, 실업, 원격근무

논문접수일 2020년 07월 31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0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09일

\* 본 논문은 2020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아태경상저널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함.

1. 제1저자, iandp@hanmail.net
2. 교신저자, jieuny1@hanmail.net

## 1. 서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가 바이러스의 상상할 수 없는 위력에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매일 수 없이 발간되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저술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 -즉 전례 없는(unprecedented), 가공할 만한(tremendous), 붕괴(collapse), 공황(panic), 새로운 일상(new normal), 비대면(untact) 등 -는 현재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 현실에서는 새로운 일상이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를 하고, 매일 같이 발표되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등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일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상, 비대면 등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형태와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소비지출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은 거의 감소하고, 외식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국내 소비 및 수요의 위축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Jorda et al. (2020)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천 년간 인류역사상 10만 명 이상의 죽음을 가져온 15차례의 대규모 전염병은 발생한 지역의 사회와 경제는 물론 더 넓은 지역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고, 전염병의 감염 자체의 범위가 넓어서 또는 무역 및 통합된 시장 때문에 - 자본시장이나 노동시장의 통합 -결국은 전 세계에 걸쳐 사회경제적 충격이 전달되었다. 이들이 분석한 기간 발생한 대규모 전염병이 미친 영향을 검토한 결과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하는데 거의 40년 정도 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전염병의 영향이 전쟁보다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흑사병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은 거의 60세 이하의 인구층에 막대한 타격을 가한 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와는 다르지만, 이번 위기가 소비지출, 기업과 노동시장 등에 입힌 경제적 타격은 이미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1-2년 사이에 개발될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진단이 사실이라면 세계 경제에 닥쳐올 위기는 더욱 전례 없이 붕괴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팬데믹(Pandemic)은 점차 확산되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각 나라에서 경제활동의 지표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에 의한 새로운 일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특히 소비지출과 노동시장에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 분야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를, 2장에서는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3장에서는 팬데믹과 노동자 근무형태의 변화를,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세계주요국의 경제에 가한 충격은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주요국의 소비자 지출, 기업의 수익, 노동자의 고용에 가해진 충격을 분석한다.

### 2.1. 팬데믹과 소비지출의 변화

팬데믹으로 인해 가게를 비롯한 경제 전체가 모두 가공할 만한 타격을 입은 정도는 전례가 없는데,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전체 산업과 도시를 대부분 폐쇄하였고 경제활동은 사상 최고치로 감소하였다. 모든 정부 차원의 정책 당국자와 여러 기관의 정책 입안자들은 우선 가게와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피해가 가게와 중소기업에 더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가 매우 빠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로 진행되어 정책 입안자들이 가게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을 목표만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팬데믹에 대응해 가게는 지출과 지출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Baker et al. (2020)의 연구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수만 명 소비자의 지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첫 번째 논문으로, 이들은 분석을 위해 가게의 재무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인 소비자 은행 계좌의 거래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은행 계좌의 거래 수준 데이터에는 가게가 지출을 조정하는 방법, 가게지출의 조정 시점·신속성·동적 변화 그리고 가게가 처한 상태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전파가 해당 지역에 전해지자 가게가 지출을 대폭 늘렸는데, 전반적으로 필수생활용품을 비축하려는 시도, 즉 사재기와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소매점에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심리가 팽배하여 사재기를 위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가계지출은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체적으로 약 50% 증가했고, 식료품 지출은 3월 27일까지 계속 증가했으며,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고 더 많은 사람이 집에 머물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레스토랑, 소매, 항공 여행 및 대중교통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특히 레스토랑 지출은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 미국의 주와 지방에 따라 팬데믹의 발생 정도가 다르고, 이에 소비자들이 다른 수준으로 반응함에 따라 지출의 속도와 타이밍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개인별로 매우 차이가 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기대 소득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공급망 중단 위험 모두 상당한 불확실성에 따라 초래되었다. 3월 초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지만, 향후 잠재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었고,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기대에 상응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비축 및 지출 반응을 볼 수 있다.

Chetty et al. (2020)은 미국의 신용 카드 총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 지출을 분석하였는데 2020년 1월 대비 3월과 4월의 개인소비지출이 약 60%, 지출 금액으로는 약 1,380억 달러가 연속적이고 급속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소비지출의 감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득 상위 25%와 하위 25%의 가계지출 카드사용금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팬데믹에 따른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 15일 소비지출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 상위 25%와 하위 25%의 2월 중 하루평균 지출금액이 각각 97억 달러와 35억 달러였는데 3월 31일에는 각각 54억 달러(-31%), 27억 달러(-23%)로 감소하였고, 4월 중순에는 상위 25%에서 지출이 각 39%로 감소 폭이 커졌는데, 이에 반해 하위 25%에서는 13%만 줄었다. 6월 중순에는 총소비지출의 50% 이상을 점유하였던 소득 상위 25%에서는 1월 소비지출 대비 15%가 감소하였고 하위 25%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소비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소득의 감소를 유발하고,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한 활동의 위축 또한 지출 감소의 원인이 된다. 산업별 부문에서 대인접촉(in-person contact)이 필수적인 서비스업(호텔, 운수, 소매, 미용, 음식서비스업 등)은 총지출 감소분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구매는 2019년에는 소매지출의 11%에서 2020년 4월과 5월에는 22%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인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업에서 지출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소비행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Goolsbee et al. (2020)도 코로나-19의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소

비자의 경제활동이 현저히 낮아짐을 분석하였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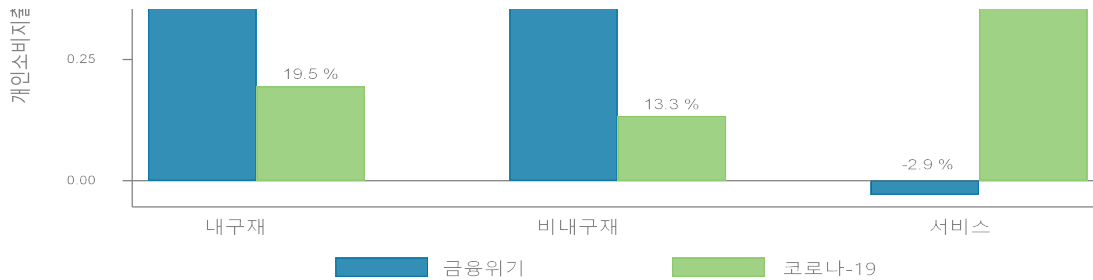
Chetty et al. (2020)에 의하면 이들 업종에서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자들은 스스로 자가격리(self-isolate)를 많이 하고 넓은 주거공간을 보유하여서 원격근무(remote work, teleworkability)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지출감소분의 약 67%를 서비스 지출의 감소가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금융위기(2008-09) 당시에는 대부분 내구재 및 비내구재와 같은 재화에 대해 지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팬데믹에 따른 충격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의 특성상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소기업 또는 영세업체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은행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2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에서 8%가 감소하였다. 소비자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반영하여 소비자 심리지수도 2020년 1월 대비 4월에는 30% 정도 하락하였고, 향후 소비계획을 반영하는 소비자 지출전망도 30% 이상 하락하였으며, 앞으로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2020년 3월과 4월의 향후 경기 전망은 2016년 1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심혜정 (2020)의 분석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3월과 4월에 각각 4.9%, 6.1%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에서 업종별 1분기의 수요는 운수업(-12.6%), 음식·숙박업(-5.6%), 문화 서비스(-6.2%, 영화, 예술공연) 등 대면 접촉을 많이 하는 업종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봉쇄조치가 내리지 않았어도 팬데믹에 의한 해외수요의 감소와 코로나-19의 국내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한 결과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Goolsbee et al. (2020)은 팬데믹에 의한 경제하락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10개 산업별 매장에 방문한 225만 명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을 때 소비자의 방문기록이 60% 포인트 하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부문별 소비지출의 변화: 코로나-19 vs. 금융위기 (2008)



자료: Chetty et al. (2020)에서 인용.

## 2.2. 팬데믹과 기업 경제활동의 변화

소비자 지출의 감소가 영업의 지속 또는 기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 문제는 기업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 즉, 영업·가동문제, 고용유지, 적정 임금수준, 해고 수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Chetty et al. (2020)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부유층이 사는 지역과 빈곤층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간의 평균소득과 주거시설 임대료의 차이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소비지출 감소의 충격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주요 3개 도시(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의 상위 5%의 부유한 지역에 있는 업체의 수익이 평균 60%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감염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위 5%의 지역에 있는 업체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40%가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주거시설 임대료의 차이에 의한 소기업의 수익손실분석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Maloney et al. (2020)는 Google의 코로나-19 스마트폰 지도 앱을 이용하여 글로벌 7개국(미국,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남아공, 스웨덴)의 경제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19의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의 이동제한을 하였고, 특히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는 3월 말에는 기업의 60%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노동

자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가동중단이나 영업 중지는 자발적이든 강제적 조치이든 기업의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Bosio et al. (2020)는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원, 대출이자 지출의 동결조치, 신규 대출의 확대 등 정부가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몇 개월 또는 심지어 몇 주 내에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Didier et al. (2020)<sup>2)</sup>이 미국의 봉쇄(shutdown) 조치하에 기업의 생존 기간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Bosio et al. (2020)은 세계은행 기업조사(World Bank Enterprise Survey)를 이용하여 아프리카(케냐, 모로코),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유럽(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라틴아메리카(콜롬비아, 페루), 중동(요르단) 12개국의 기업, 각 국가당 600개 기업의 자금충당경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업은 생존 기간이 평균 10주 정도인 것에 반해 페루에 있는 기업은 평균 27주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긴 생존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포르투갈, 카자흐스탄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원인은 이들 4개국 모두 운영자금의 80% 이상을 하루 하루의 매출을 통한 현금으로 충당하고 은행 대출과 같은 외부자금을 거의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반면 페루와 콜롬비아 같은 남미 2개 국가는 운영자금의 60% 이상을 외부자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특히 소매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생존 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는데 남미 2개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7주에서 10주 정도의 짧은 생존 기간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정부가 노동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선택과정을 왜곡시켜 효율적 기업도 도산하며, 둘째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소비자가 지출을 과도하게 줄인 결과 기업의 수입이 많이 감소하였고, 셋째 금융기관의 정보 부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도산은 해당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쇄반응을 일으켜 경제의 주요 부문이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고, 세계화에 의해 각국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글로벌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경기

2) Didier et al. (2020)은 50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들의 50%가 1개월분 이하, 25%는 2개월분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은 빠르게 바닥이 드러나고, 특히 레스토랑과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길어야 2주 정도 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이 업체들은 바로 도산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

### 2.3. 팬데믹과 실업률의 변화

소비지출의 감소와 봉쇄조치에 따른 기업의 가동중단 또는 휴업으로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 시간제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업 또는 휴직의 위험에 처한다. Han et al. (2020)은 미국의 월간 고용 통계를 이용하여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고용률을 분석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 중순까지 고용률은 60%대를 유지하다가 미국의 팬데믹 선언 후부터 급속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4월에는 52%를 기록하였고 5월에도 54%로 고용률이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2020년 3월 14일까지는 30만 건 이하를 유지하다가 3월 15일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4월 4일에는 약 630만 건이 청구되어 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실업급여 청구자의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라는 점이다.

Chetty et al. (2020)은 저임금 노동자, 특히 레스토랑을 포함한 음식 서비스 및 소매점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노동자와 산업 전반에 걸친 소득 하위 25%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임금, 고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의 충격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전산업에 대해 전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률은 10%에서 20% 정도 하락했으나,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률은 35%에서 40%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음식 서비스 및 접객 서비스의 고용률은 60% 정도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 결과는 팬데믹이 저임금 및 시간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Fana et al. (2020)은 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일어난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93개 분야의 산업을 5개 부문으로 분류하여<sup>3)</sup> 2020년 3월에서 4월 중 기간의 노동시장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EU 28개국에서 노동자의 25% 정도는 필수적 영역에 속해 있어 노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다른 25%의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tele-workable) 영역, 즉 대부분이 전문직 서비스업(ICT, 금융, 회계, 연구, 디자

3) Fana et al. (2020)은 1. 필수적(essential)이며 완전히 오픈한 그룹, 2. 재택근무한 그룹, 3. 거의 필수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오픈한 그룹, 4. 거의 비필수적이고 부분적으로 오픈한 그룹, 5. 비필수적인 문을 닫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부문의 받은 영향을 분석하였고 3과 4의 그룹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그룹이다.



인, 광고 등) 부문 외 교육, 공공행정 부문도 포함된다. 평균 40% 정도의 노동자들은 엄격한 제한 조치가 취해진 상태로 부분적으로 노동을 했으며, 나머지 EU 평균 10%는 업체가 영업 중지 등의 이유로 노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 부분적으로 노동하거나 노동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은 EU 28 전체 노동자의 56%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주로 교육수준이 낮은 블루칼라(15-29세의 젊은 층(28%)), 여성 노동자들, 1인 자영업자(self-employed) 등 저임금을 받으며 비정규직, 불안전고용 상태에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지역별로는 동유럽의 비율이 서유럽에 비해 높다.

이들 분석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첫째, 스페인·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주로 휴양이나接客 등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높는데 이들 국가는 팬데믹의 충격을 가장 강하게 받았고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1년에서 2년)에도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 국가들은 팬데믹의 재유행으로 정부의 강제적 제한조치가 취해지면 가장 먼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이들 업체의 노동자들은 주로 1인 자영업자·임시직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실업자가 된다. 둘째, 북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팬데믹 이전에 대규모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행기에 있었는데 팬데믹이 재택근무의 보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불행하게도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해도 재택근무가 보편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재택근무의 현재 상황과 보편화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 3. 팬데믹과 노동자 근무형태의 변화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 중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노동자들의 근무형태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즉, 원격근무(remote work or tele-work),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 비대면 방식의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Alfaro et al. (2020)에 의하면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다음 세 가지의 전달경로를 통해 위기가 확대된다. 첫째, 봉쇄조치로 출현한 직접적 공급 충격은 의류(apparel)같은 경제의 기본적인 부문으로 영향을 주지만, 노동자가 집에서 일하는 것 또는 전화로 작업지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을 당할 위험이 감소한다. 둘째, 국내수요 충격의 독특한 면은 팬데믹에 의한 감염위험이 높아진 결과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예를 들어, 극장, 호텔, 식당, 비필수부문 소매점)가 감

소한다는 점이다. 셋째, 앞의 두 가지 효과는 투입과 산출(Input-Output: IO)의 연결고리를 통해 증폭되어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전달되고 전반적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각 나라별 또는 산업별로 비대면 근무가 얼마나 도입되어 있고, 원격근무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이번과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단으로 원격근무를 보편화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 3.1. 근무형태의 변화와 현황

Brynjolfsson et al. (2020)은 봉쇄 명령에 기업과 노동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4월과 5월에 각각 구글 소비자조사(Google Consumer Surveys)를 이용하여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들 조사에 의하면 모든 노동자의 37.1%가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고, 약 35.2% 출퇴근 근무를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또한, 노동자의 15.0%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재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0% 정도이고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0% 정도로 나타나 Dingel et al. (2020)의 추정치인 37%보다 훨씬 높았고, 10.1%는 해고되거나 휴직상태에 있었다. 이들의 다음 조사에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원격근무로 전환되어 현재 미국 노동자의 약 절반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직·전문직 및 이에 관련 직업군에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원격근무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해고되거나 휴직할 가능성은 작게 나타났다. 노동자가 원격으로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고 기업도 인식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이 작동한다면 팬데믹으로 유발된 변화는 원격근무로 지속적 전환할 것이라는 전조일 수도 있다.

Fana et al. (2020)에 의하면 팬데믹 위기 이전에 EU에서의 원격근무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EU 28에서 일상적인 원격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 단 5% 정도이고, 많아야 10% 정도이다. 이들은 노동자 전체가 원격근무를 할 때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EU 28 전체 산업의 원격근무지수는 10.24 정도이고 원격근무가 가능한 부문의 지수도 17.5로 낮았다. EU 국가별 원격근무가 가능한 산업부문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와 핀란드로 지수가 40 정도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지수가 10보다 낮았으며, 이들 국가의 원격근무지수는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산업부문의 지수보다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팬데믹의 위기로 대두된 노동자들의 근

무형태가 원격근무로 신속히 이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과 북유럽과 대륙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순조롭게 재택근무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EU 국가 간에도 이러한 비대칭성(asymmetry)이 생기는 이유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휴양·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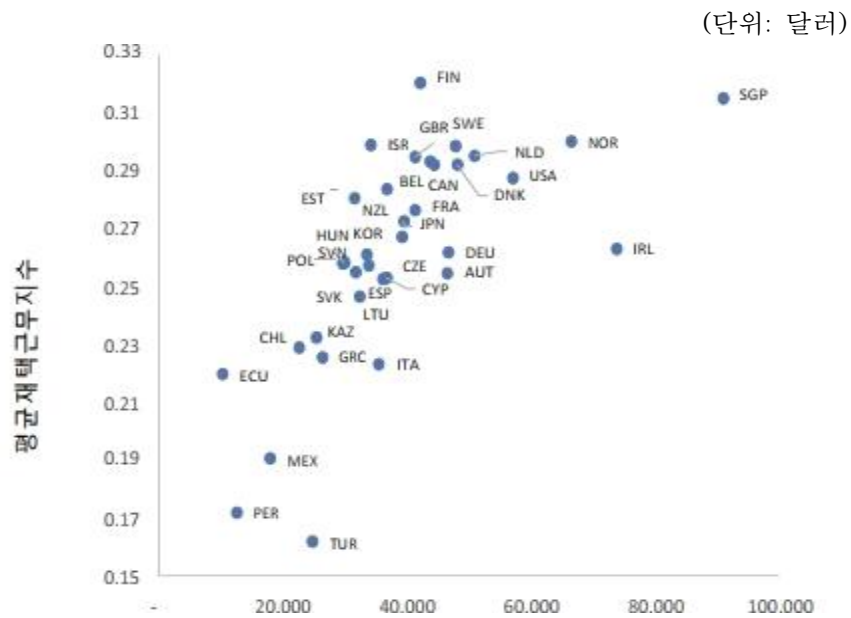
Brussevich et al. (2020)은 재택근무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였다. 즉, 미국의 경우 Dingel et al. (2020)이 직업 정보 네트워크(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O\* NET)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출한 원격근무 가능성에 대한 직업별 수준 분류와 OECD의 국제 성인역량평가 프로그램(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라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 설문조사에는 직업 및 고용 부문에 대한 정보 외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두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기 위해 O\* NET 데이터의 직업 범주를 PIAAC 데이터에 적용하여(mapping), 이를 통해 원격근무 가능성을 직업별 및 노동자 특성과 연관시켰다. 이들의 방법론은 소비자의 선호도, 봉쇄조치 및 반복적 봉쇄의 잠재적인 변화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직업의 특성과 지속적 중단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들은 개인 수준의 데이터(인구통계 데이터 및 작업 특성)를 이용하여 원격 작업 가능성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반복적 EM(Iterative Expected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개인의 구체적 원격근무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노동자의 직업별 원격근무 가능성 지수가 Dingel et al. (2020)이 개발한 미국에 대한 원래의 직업 수준 지수와 Mongey et al. (2020)의 작업자 특성에 따른 후속 연구에서 특성화된 패턴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미국 초등 직업(Elementary occupations, 예: 청소부, 건설 노동자, 노점상)은 집에서 일할 수 없고, 공장 및 기계 운영자와 공예 및 관련 무역 노동자(예: 기계공, 의복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직업별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전문가, 관리자, 공무원과 법률가는 재택근무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다.

한편 이들은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원격근무지수를 추정하여, 1인당 구매력 평가 GDP(Purchasing Power Parity GDP: PPP GDP)와 원격근무지수의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PPP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원격근무 가능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터키는 모든 직종에서 낮은 재택근무 가능성 지수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매우 적다. <그림 2>는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재택근

무 지수의 연관성을 나타내는데 원격 작업능력을 보면 터키·칠레·멕시코·에콰도르와 페루는 평균점수가 현저히 낮다. 이는 신흥국과 개발도상 국가의 근로자가 엄격한 봉쇄 기간에 지속적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Fana et al. (2020)에서 처럼 선진국 내에서도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가장 낮은 지수에 속하며 북유럽 국가와 싱가포르를 상대적으로 개발된 디지털 경제를 반영하여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

<그림 2> 각 국의 재택근무지수: 1인당 PPP GDP



자료: Brussevich et al. (2020)에서 재인용.

교육수준과 나이를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고령 노동자(60세 이상)는 젊은 근로자(30세 미만) 대비 원격근무 능력지수가 높은 직업에 종사할 확률이 약간 낮다. 그러나 이 결과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시아 국가(예: 한국, 싱가포르, 일본)나 일부 신흥 시장경제(예: 카자흐스탄, 에콰도르)에서 고령 노동자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작다. 이는 자동화 기술의 채택과 국가별 근로자 교육수준의 차이가 큰 것을 반영하나 교육수준이 낮은 고령 노동자라도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원격근무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경력을 통해 더 높은 고위직으로 자연스럽게 승진함에 따라 수명주기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EU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채택하여 양극화 해소와 탄소 없

는 사회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2,50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을 결정하였다.

### 3.2. 근무형태 변화의 소외계층과 생산성

Dabla-Naorris et al. (2019)에 의하면 이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커졌던 세대 간의 소득 격차가 현재의 위기 이후에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russevich et al. (2020)에 의하면 여러 나라에서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원격으로 일할 가능성이 작는데, 특히 싱가포르와 한국의 시간제 또는 임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재택근무 지수가 상당히 낮다. 유럽 내에서 임시직 계약은 스페인, 폴란드 및 네덜란드에서 전체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봉쇄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의 경우 특히 그렇다. 따라서 비정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는 일자리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

대부분 국가에서 대다수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노동자 250명 이하)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와 비교하여 원격근무가 가능한 일자리가 적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기 어려워 대기업보다 뒤처진 결과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별로 없다. 한편 중소기업은 유동성 제약이 많아서 직원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적고 봉쇄 기간에 생존할 가능성이 작아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손실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Brussevich et al. (2020)은 원격근무 능력이 낮은 이유로 인해 해고 또는 휴직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는데, 미국 노동 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고용 보고서를 사용하여 원격근무 가능성 지수의 부문별 임계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업의 위험이 가장 큰 가능성 지수의 임계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임계치는 모든 국가 표본에 적용되어 임계치의 이하로 떨어지는 글로벌 근로자의 수를 평가하므로 해고 또는 휴직 위험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 결과는 표본에서 35개국의 봉쇄조치로 인해 9,730만 명 이상의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15% 이상이 정리해고 및 실업의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4월 BLS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라 이 일자리 중 2,100만 개 또는 고용의 약 13%가 실업의 위험에 처해있다. 표본 35개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은 약 1,760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식당 및 숙박 시설이며, 해고 및 실업 위

험에 처한 1,39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도소매업이다.

Bartik et al. (2020)은 코로나-19 확산기 동안 원격 작업으로 전환한 직원의 생산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생산성이 어떠한가를 지속적 분석을 했다. 회귀 분석결과 Dingel et al. (2020)에서 처럼 적합성 측정과 상관관계는 긍정적이지만 집에서 일하는 측정치보다 약한 관계를 보였다. 원격근무가 가능하다고 Dingel et al. (2020)이 예측한 산업에서 기업가들도 재택근무자의 생산성이 더 높다고 믿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에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와 코로나-19의 위기 시 원격근무자의 생산성 간에 강한 상관관계 보인다. 어떤 부문에서 원격근무의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게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이전부터 더욱 많은 원격근무가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교육수준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는 대학 졸업자를 10% 포인트 더 채용하면 생산성은 약 10.3% 포인트가 증가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격근무가 더 쉽고 생산적이고, 산업 내 여성 노동자의 비율과 매우 높은 생산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대기업이 일부 근로자가 집에서 일하는 비율이 더 높더라도 더 큰 회사의 규모가 재택근무자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사실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규모가 큰 기업의 노동자들 간에 더 많은 개인적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생산성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대기업의 원격 팀 간에 더 어려워지는데 이는 더 많은 다자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 작업자의 플러스 생산성은 규모가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근무형태 변화의 확산 가능성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대부분 국가에서 직종과 상관없이 일하는 장소를 빠르게 변환시켰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 또는 자가격리 명령으로 집에 머물고 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이 원격으로 일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일하는 장소와 고용의 변화는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하여 영구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노동자들의 50% 이상은 소기업(microenterprise)에 고용되어 있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 소기업 중 매우 작은 기업들은 이번과 같은 팬데믹에 의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도산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은 숙련도가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연관성이 작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고, 교육수준도 매우 낮아 원격근무에 부적합하다.

Bartik et al. (2020)에 의하면 팬데믹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엄청난 경제적 침체를 일으켰지만, 노동자들의 근무 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 가지 견해는 경제의 기본 특징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팬데믹이 완화된 후 작업 위치가 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업에 이익이 되는 노동자 간 대면 작업의 특성은 유대를 촉진하거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원격근무도 일시적인 충격에서 그치지 않고 항구적으로 지속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일시적 충격이 항구적으로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이 원격근무의 기능을 구축하는데 고정 비용을 지급하고, 그 고정 비용을 지급한 만큼 이제 더 많이 원격근무를 확대하는 길이 기업이 선택할 최선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지속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기업이 팬데믹 이전에 더 많은 원격 작업을 허용했어야 하지만 원격근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작업의 조정 문제로 인해 원격근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의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기업은 훨씬 더 원격근무를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예상되는 원격근무의 전반적인 수준에 중점을 두고 미국 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온라인 네트워크 즉, Alignable(<https://www.alignable.com>)과 전미실물경제협회 즉, NABE(The 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 Economist)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전자는 2020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후자는 4월 13일에서 16일까지 기간에 실시하였다. Alignable 응답자의 39%만이 원격근무를 시작한 노동자의 80% 이상은 위기 이후 사무실로 되돌아갈 것이라 답변했다. 마찬가지로 NABE 응답자의 52%는 원격근무자의 20% 이하가 위기 이후에도 원격근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일시적이지만, 여전히 표본의 절반 이상이 위기 이후에도 상당수의 원격근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기가 끝난 후에도 업무의 위치가 원격근무 형태로 크게 변화함을 의미하고,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40% 정도가 팬데믹 이후에도 노동자의 4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16%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사실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동

안은 원격근무로 이행하는 산업의 적응 능력의 시험장이 될 것이며, 직업의 본질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Brynjolfsson et al. (2020)에 의하면 빠르게 전개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의 초기 변화를 분석했으며,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할지는 여전히 주목할 문제이다. 즉 기업과 개인이 기술을 포함하여 원격 작업을 위한 고정 비용에 투자하면 필요한 인적 자본 및 조직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그 후 원격근무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기에 의해 새로운 원격근무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예기치 않게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위기에서 파생된 지속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원격근무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 안전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한편, Karr et al. (2020)에 의하면 팬데믹에 따라 지역 사회·기업 그리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4차 산업혁명(Fo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을 지원하여 자동화로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기체적 조직 수준으로 기업 구조를 확고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염병은 또한 특정 노동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특히 여성, 노인, 항체가 없는 작업자 등은 코로나-19의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더 엄격한 노동 공급 및 생산성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근무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팬데믹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가 당면한 문제로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작업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하는 정책을 통해 특정 작업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서 소비자의 지출 감소에 의한 기업의 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자의 실업 위험을 분석하였고,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실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근무 형태로 원격근무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팬데믹 선언 직후 먼저 한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지출이 급속하게 대규모로 감소했다.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전체 산업과 도시를 대부분 폐쇄하였고 경제활동은 사상 최고치로 감소하였다. 정부 차원의 정책 당국자와 여러 기관의 정책 입안자들은 우선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피해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더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피해가 매우 빠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로 진행되어 정책 입안자들이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을 목표만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팬데믹에 대응해 가계는 지출을 감소시켰으며,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해 음식점, 소매, 항공 여행 및 대중 교통 부문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둘째, 대부분의 나라에서 봉쇄 조치의 결과 소비지출의 감소와 공급망의 붕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동유럽과 남유럽에 있는 기업은 전통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특히 소매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생존 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는데 몇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7주에서 10주 정도의 짧은 기업의 생존 기간을 보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실업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봉쇄조치 이후 부분적으로 노동하거나 노동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은 EU 28 전체 노동자의 56%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로 교육수준이 낮은 블루칼라의 젊은 층, 여성 노동자들, 1인 자영업자(self-employed) 등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스페인·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주로 휴양이나接客 등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는데 이들 국가는 팬데믹의 충격을 가장 강하게 받았고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1년에서 2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대유행은 대부분 국가에서 직종과 상관없이 일하는 장소를 빠르게 전환시켰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 또는 자가격리 명령으로 집에 머물고 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이 원격으로 일할 가능성이 없지만 어떤 부문에서는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했다. 이러한 일하는 장소와 고용의 변화는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하여 영구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노동자들의 50% 이상은 소기업(microenterprise)에 고용되어 있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 소기업 중 매우 작은 기업들은 이번과 같은 팬데믹에 의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사라지거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특히 가난한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은 숙련도가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연관성이

작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수준도 매우 낮은 이유로 원격 근무에 부적합하다. 한편, 북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격근무자가 40%에서 50%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일단 기업과 개인이 기술을 포함하여 원격 작업을 위한 고정 비용에 투자하면 필요한 인적 자본 및 조직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더욱이 팬데믹 위기에 의해 새로이 원격근무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일부는 기대 이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원격근무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 안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그 자체로 감염 위기의 심각성은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대부분 나라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조치는 없었지만 예외는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신속하고 대규모의 재정투입과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을 시행한 결과 경제는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팬데믹을 제압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간 내에 개발되기는 어렵고, 미국, 브라질 등 국가에서는 재유행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타격을 입은 경제는 앞으로 몇 년이 걸려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적 방역의 성공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세계방역의 성공과는 별개로 우리는 코로나-19 후의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 즉, 급격한 가계지출의 감소와 봉쇄 조치로 인한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과 1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제, 원격근무의 확대, 온라인 구매의 증가, 온라인 교육의 확대,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 이동의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의 감소 등에 대한 전반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심혜정. (2020).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국내 서비스업 생태계*.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NO.8, 1-10.
- 한국은행. (2020). *최근의 경제 동향*, 경제통계월보, 6, 3-13.
- Alfaro, L., Faia, E., Lamersdorf, N., & Saidi, F. (2020). *Social interactions in*

- pandemics: Fear, altruism, and reciprocity* (No. w2713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37.
-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Pagel, M., & Yannelis, C. (2020). *How does household spending respond to an epidemic? Consump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No. w2694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33.
- Bartik, A. W., Cullen, Z. B., Glaeser, E. L., Luca, M., & Stanton, C. T. (2020). *What jobs are being done at home during the COVID-19 crisis? Evidence from firm-level surveys* (No. w2742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16.
- Bosio, E., Djankov, S., Jolevski, F., & Ramalho, R. (2020). *Survival of Firms during Economic Crisis* (No. 9239).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29.
- Brussevich, M., Dabla-Norris, E., & Khalid, S. (2020). *Who will Bear the Brunt of Lockdown Policies? Evidence from Tele-workability Measures Across Countries* (No. 20/8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1-24.
- Brynjolfsson, E., Horton, J. J., Ozimek, A., Rock, D., Sharma, G., & TuYe, H. Y. (2020). *COVID-19 and remote work: an early look at US data* (No. w2734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25.
- Chetty, R., Friedman, J. N., Hendren, N., & Stepner, M. (2020). *How did covid-19 and stabilization policies affect spending and employment? a new real-time economic tracker based on private sector data* (No. w2743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39.
- Dingel, J. I., & Neiman, B. (2020).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No. w2694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14.
- Didier, T., Huneus, F., Larrain, M., & Schmukler, S. L. (2020). *Financing Firms in Hibern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o. 147598).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1-24.
- Fana, M., Tolan, S., Torrejón, S., Urzi Brancati, C., & Fernández-Macías, E. (2020). *The COVID confinement measures and EU labour markets* (No. JRC120578). European Commission COVID & Empl Working Group, 1-28.
- Goolsbee, A., & Syverson, C. (2020). *Fear, lockdown, and diversion: Comparing drivers of pandemic economic decline 2020* (No. w2743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23.

- Han, J., Meyer, B. D., & Sullivan, J. X. (2020). *Income and Poverty in the COVID-19 Pandemic* (No. w2772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15.
- Jordà, Ò., Singh, S. R., & Taylor, A. M. (2020). *Longer-run economic consequences of pandemics* (No. w26934).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June, 1-27.
- Karr J., Loh K., and San Aandres E. A. (2020). *COVID-19, AIR and the Furture of Work*, APEC Policy Support Unit Policy Brief No. 34,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
- Maloney, W. F., & Taskin, T. (2020). *Determinants of Social Distancing and Economic Activity during COVID-19: A Global View* (No. 9242). The World Bank Group, 1-21.

#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COVID-19: Focusing on Consumer Expenditure and Labor Market\*

Lee, Minwoo<sup>1</sup>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hingyeong University

You, Jieun<sup>2</sup>

Teaching Professor, Department of French & African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was intended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impact of COVID-19 especially on consumer expenditure and labor market of COVID-19. This paper first analyzed how household consumption responds to pandemic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VID-19 virus. Initially, spending increased sharply, particularly in retail, credit card spending and food items, followed by a sharp decrease in overall spending. Under the assumption that firms have no incoming revenues and cover only fixed costs, the median survival time across industries ranges within 8 to 19 weeks in many countries. with most of the small firms and traditional service such as retails, restaurant, accommodation. The impact of restrictions on economic activity imposed on the EU 27 & Great Britain on the EU' s labor market was assessed, suggesting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works could work remotely and more likely to switch to remote work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new future by systematical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ndustrial policies on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Corona-19 namely, remote work, remote education, telemedicine, online purchase expansion, and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Keywords** : COVOD-19, Pandemic, Survial of Firms, Unemployment, Remote Work

Received July 31, 2020

Revised October 06, 2020

Accepted October 09, 2020

---

\* All papers comply with the ethical code se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and th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Commerce.

1. First Author, iandp@hanmail.net

2. Corresponding Author, jieuny1@hanmail.net